

'이낙연 구원투수' 만 바라보는 민주당의 복잡한 속내

'대권 잠룡'·'역대 최장수 총리' 與 국면전환 유일 카드

"현 지도부로 총선 승리 어렵단 인식 다수...쇄신론 직면"

"이낙연 총리를 당으로 돌려보내 줄 청와대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다"

대권 잠룡이자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쓴 이낙연 국무총리가 현재 여당에 남은 유일한 국면전환 카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 총리가 민주당의 '구원투수'라는 평가도 이전 익숙해졌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장 많이 쏟아지는 질문도 이 총리의 당 복귀 시점이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이 총리의 등판이 절실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총리도 본인 역시 시점을 보고 있을 뿐, 당 복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눈치 없이 오래 머물러있는 것도 좋을 것이고 제멋대로 (처신)해서 사달을 일으키는 것도 총리다운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의 조기 등판론이 힘을 받는 이유는 '이대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이다. 조국 국면에서 애

써 '단일대오'를 유지해온 민주당이지만 더는 쇄신을 미룰 수 없다는 불안이 터져나오고 있다.

조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가 쇄신론과 당 지도부 책임론을 단칼에 일축하자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강도 높은 지도부의 '입단속'에 대한 피로감도 흘러나온다.

한 조선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 지도부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인식이 다수"라며 "당대를 정당할 수 없다"는 공포가 엄습할 뿐이지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여권은 이번주 내내 차기 총리설로 술렁였다. 이 총리의 후임으로 민주당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퍼졌다. 정 전 의장 측은 곧바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정 전 의장 외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5선의 원혜영 의원 등이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파격과 혁신보다는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해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현역 의원 불패' 관례에 우선 기대는 분위기가 짙다.

쇄신론에 직면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여당의 상황이 총리 교체에 앞당길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다만 "후임 총리 인사청문회가 불타는 국회에 기쁨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라고 한 박지원 대안신당(기청) 의원의 관측처럼 내년도 예산안 통과까지는 이 총리가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 전망도 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총선 전에 총리를 바꾸면서 후

임 총리 인사청문회가 다시 문제가 된다면 견장을 수 없다는 점과 총선을 진두지휘할 인물이 안보이는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를 앞세워 총선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딜레마로 청와대의 고민이 깊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감형으로 '족쇄' 풀린 이정현, 순천시 총선 담금질 본격화

"집단 민원현장 등 찾아 지역구 주민 만날 것"

4선 목표에 중앙정치 '새판짜기' 의욕도 활발

기사회생'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에서 '2020 총선'을 향한 본격적인 담금질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방송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은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었으나 별금형으로 감형이 되면서 '족쇄'가 풀렸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다시 출마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등을 거치며 정치적 추락을 거듭했고,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등으로 인해 지역에서의 공식 행사나 모임은 물론 설이나 추석 명절에도 얼굴을 드러내지 못한 채 '정중동'(靜中動)의 모습을 보여왔다.

족쇄가 풀린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재판 직후(뉴스1)과 통화에서 "그동안의 방식과는 달리 본격적으로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겠다"며 공식적인 정치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지역구를 방문한데 이어 이달 1일에는 신대지구 옥너봉을 둘러보며 근린공원 문제를 살펴봤다.

또 2020년 순천시 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활동을 전개하며, 행사 대신 지역의 집단 민원 현장 위주로 시민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4선'이란 21대 총선 도전 목표와 함께 중앙정치 '새판짜기'를 위한 포부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선이 되면 중앙 정치판을 현장 경험이 있는 교육, 과학, 외교, 문화 등의 전문가들로 확 바꾸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과거는 잊고 미래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지향점은 한마디로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야 한다"며 "청와대도 언론도 기업도 학계도 각자 개인도 미래를 상상하고 미래의 걸림돌을 풀 것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이처럼 이정현 의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대항마로 나설 인사들의 면면도 관심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경우 서갑원 지역위원장과 노관규 전 순천시장, 장만재 전 전남교육감 등 '빅3'가 공천장을 받기 위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과 정책위 부의장을 지낸 김영득 팔마청백리문화재단 이사장과 순천시장을 3차례 역임한 조충훈 전 시장, 김광진 청와대 정부 비서관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외에 호남 최초의 진보정당 의원으로 지역구에서 재선을 했던 민중당의 김선동 전 의원도 3선 도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용빈 민주 광산갑 위원장 '용빈아! 반갑다' 출판기념회

오는 10일 광산문화예술회관...박원순 서울시장 등 참여

"시민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정치인 되고 싶은 소망 담아"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산구(갑) 지역위원장이 10일 오후 2시 광산구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저서 '용빈아! 반갑다' (도서출판 시와사람)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용빈 위원장은 "정치가 반갑지 않고 정치인이 반갑지 않은 시대에, '반가운 정치, 시민들이 반겨주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소망이 책 제목 속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송갑석 국회의원, 이형석 최고위원, 이철우 5·18기념재단이사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정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삼호 광산구청장, 고재유 전 광주시장, 민형배 전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 강박원,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 박석원 전 광산구의회 의장, 정선수 전 광산구부구청장, 장성수 전 광주시건설조합부장, 김형수 광주평화포럼대표 등 정치권·시민사회 유력인사, 지지자들이 대거 참여해 책 발간을 축하할 예정이다.

책은 저자 서문, 7인의 추천사, 제1부 '용빈아! 반갑다', 제2부

'용빈아! 부탁해', 부록 순으로 구성됐다.

추천사는 강용주 이사(재단법인 진실의 힘)를 시작으로 김삼호 광산구청장, 김승필 영화 '택시운전사' 김사복 선생 아들, 박광은 최고위원(경기 수원정), 박원순 서울시장, 박주민 최고위원(서울 은평갑),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갑)이 차례로 나서 저자의 걸어온 길을 반추한다.

제1부 '용빈아! 반갑다'는 고향 광주에서 자라온 이야기,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했다 자진 퇴교하고 전남대 의과대학에 입학해 학생운동권으로 치열하게 살아왔던 이야기, 의료봉사자, 사회활동가로서 살아오다 민주당 호남인재 영입 1호로 정치에 입문한 후 겪은 얘기 등 이 위원장의 지난 족적을 담았다.

제2부 '용빈아! 부탁해'는 이낙연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송유진 전 보병 제17사단 장,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이사장, 공성술 웹툰 작가 등 문화기획자, 사회복지 전문가, 청년농업인, 전통시장 상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1 인과의 대담을 실었다.

책 표지 제호 서체는 '무등산 노무현길' 표지석 서체, 대하드라마 '장미꽃' 타이틀을 썼던 유명 캘리그래피 석산 진성영 작가의 손길에서 나왔다.

이용빈 위원장은 저자 서문에서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살펴봐야 한다는 격언이 있듯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발가벗겨 보여주는 것은 정치하겠다고 나선 사람의 의무이기도 할 것이다"고 책 출간의 취지를 밝히면서 "특히 제2부에 실린 각 분야 현장 활동가 21명과 대담은 많은 공부를 하게 만들었으며, 이 시대의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강렬하게 각인시켜 주었다"라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